



OPEC+, 증산 규모 유지

사우디 등 OPEC+ 7개국, 6월 일평균 18.8만 배럴 증산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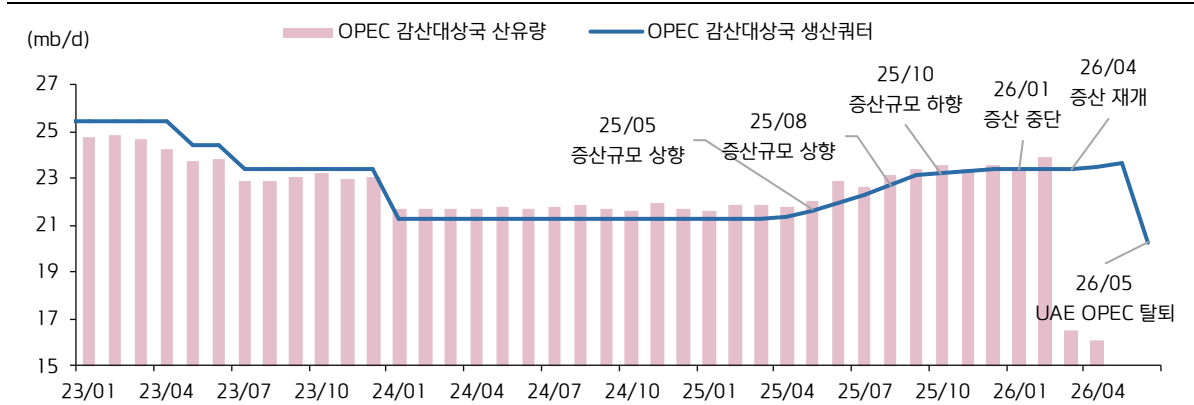
3일(현지시간) 사우디 등 OPEC+ 내 7개 국가는 6월 산유량 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며, 6월에도 증산을 이어갈 것으로 결정했음. 2026년 6월 전체 증산 규모는 일평균 18.86만 배럴로 4월보다 축소되었으나, 5월 1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가 OPEC 및 OPEC+를 탈퇴한 점을 고려했을 때 OPEC+의 증산 속도에 변화 부재. 참여국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원유 시장 상황 및 감산 준수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매달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발표, 다음 회의는 6월 7일(현지시간) 진행될 예정.

원유시장, 중동발 공급 불안 지속

이번 생산 결정 회의는 UAE 탈퇴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회의였던 가운데 특별한 변화는 부재. 각 국가에 할당된 증산 규모는 5월과 동일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유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이 제한된 가운데 사우디를 제외하면 생산 여력도 제한적인 만큼, 증산 속도를 높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임. Rystad Energy에 따르면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의 4월 산유량은 3월 대비 약 6% 축소. 3월보다 걸프 산유국의 생산 감소가 둔화되었으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는 동안 실질적인 증산이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 단기적으로 원유시장 내 공급 부족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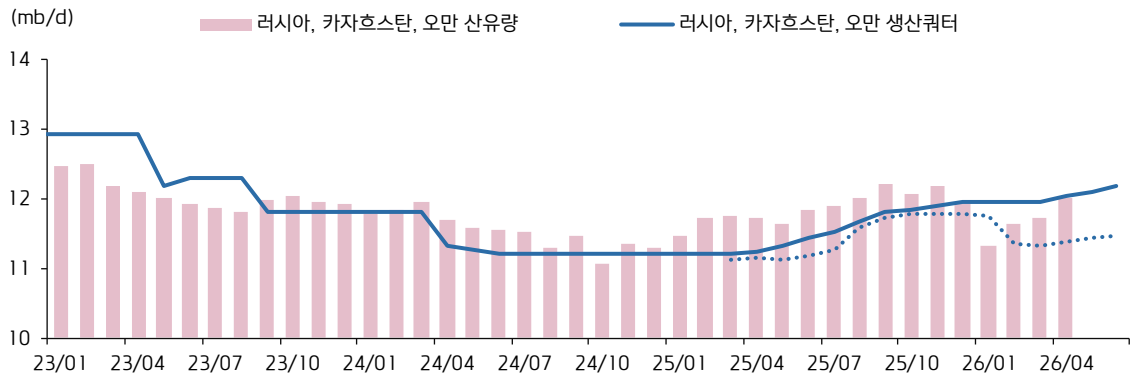
이를 감안했을 때, 현재 유가 레벨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이슈는 미-이란 협상 진전이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로 판단. UAE의 OPEC 탈퇴로 향후 UAE의 공격적인 증산 기대가 높은 상황이나, 단기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된 점은 이를 뒷받침. 물론 중동 불안이 유가의 추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은 제한적. 미-이란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기는 하나 최근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협상안을 전달하는 등 외교적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 또한 지난달 주요 에너지기관은 고유가 흐름에 따라 2026년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 이를 고려했을 때, 유가의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 정세에 변화 부재 시 고유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

OPEC 감산대상 산유국 생산쿼터와 산유량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현재 OPEC+ 내 증산 참여 국가는 알제리,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카자흐스탄, 오만, 러시아

카자흐스탄, 오만, 러시아 산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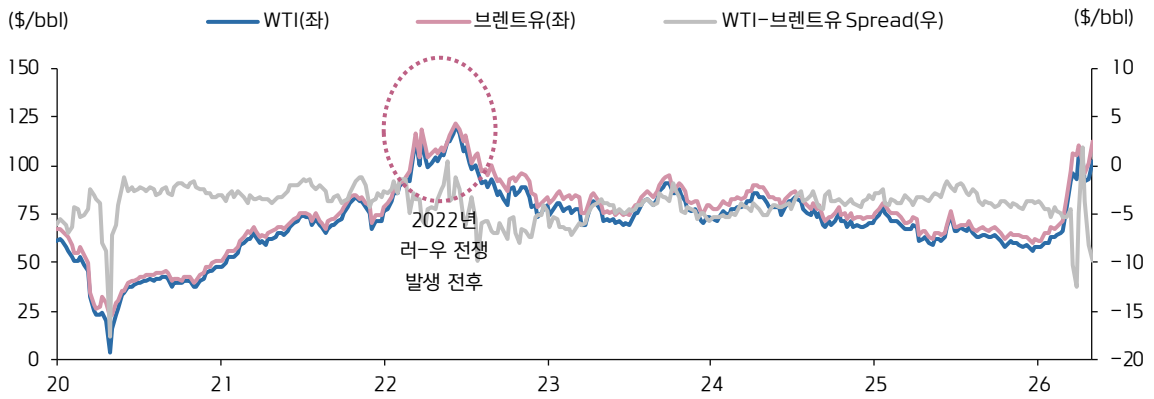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현재 OPEC+ 내 증산 참여 국가는 알제리,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카자흐스탄, 오만, 러시아

주 2) 파란색 점선은 보상감산안을 반영한 생산쿼터

최근 국제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